

WE DOKDO 활동 보고서

접 수 번 호	중등2
학 교 명	철산중학교
동아리(팀)명	WE DOKDO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우리 동아리는 2018년 4월 16일 독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지금 일본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을 크게 느끼며,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는 시기이다.

동아리를 만든 목적은 독도가 멀게 느껴지거나, 혹은 독도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독도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라는 것을 놀듯이 재미있게 알리고자 모이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치관 성립에 중요한 시기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독도 홍보활동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 동아리는 기존의 매체들을 더욱 활용하여 페이스북에 동아리 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 동아리의 활동을 알리고, 매월 마지막날에는 '독도, 너는 누구니?'라는 대주제로 글을 써서 독도에 대한 사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연재하기로 하였다.

○ 동아리(팀)명 소개

우리 동아리의 이름은 '**WE DOKDO**'이다.

이 이름의 의미는

첫째로 "우리(WE)는 독도와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도는 우리가 있어 대한민국의 독도인 것이고 , 우리의 땅이기에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위 독도에서 '위'는 "지킬 위 (衛)"로 해석하여 '소중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도는 특별한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 동아리(팀) 구성원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류화평	3	동아리 운영 & 활동 진행 담당 (회의 진행 및 전체 스케줄 관리)
2	양주연	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편집 담당
3	강서윤	2	독도자료 조사 및 페이스북페이지 관리 담당
4.	오현택	2	독도자료 조사 및 행사홍보, 실행 담당
5.:	류보배	1	독도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홍보 담당

* 행사 진행시 모든 구성원들 전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다.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PLAY DOKDO!**

- 주제 선정 이유 :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독도 알리미로서 열심히 즐기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WE DOKDO활동을 진행하고, 독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독도 홍보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며, 독도가 우리 삶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으며 **play**라는 것은 놀자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시작(플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즉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선정했다.

○ 활동 기간 : 2018/5/2(수)-2018/8/9(목)

○ 추진 방법 : 독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해 나가야 할 유,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동아리에서 직접 행사물품(홍보용 티셔츠 및 배지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사용하였다.

동아리 친구들 뿐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 도우미로 활동해 도움을 주었으며, 어머님들과 활동 때 주변에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도 같이 도움을 주셨다.

○ 활동 내용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30 - 6/1	독도에게 한마디	철산중학교	<p>이 행사는 철산중학교 중앙현관에서 진행 되었다.</p> <p>동아리 지도선생님과 팀원 5명, 행사 도우미 3명의 학생들이 1500여명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진행 하였다.</p> <p>철산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1호 글을 남겨주신 이후에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땅, 독도' 등 독특하고, 진심이 담긴 독도를 향한 응원 글이 나왔다.</p> <p>400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서 독도에게 응원의 글을 써주신 후,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p>
6/12 - 7/6	독도, 그 역사를 알아보자!	철산중학교	<p>동아리 부원 및 학부모가 직접 독도와 관련된 역사를 정리 및 판넬을 제작하였다.</p> <p>제작된 판넬은 철산중학교 중앙현관에 전시하였으며, 동아리 부원들은 철산중학생들을 상대로 독도에 관한 질문에 응대하는 시간을 가졌다.</p> <p>철산중학교 전교생 1500여명이 이 전시물을 보았고, 한 학생은 '이 게시물을 보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다.</p>
5/30-6/1, 6/10, 7/26	독도 배지 배부	철산중학교, 새롬어린이집, 철산초등학교	<p>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1000명에게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한 '독도 홍보대사 배지'를 3차례에 걸쳐서 배부했다.</p> <p>새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상대로 '독도를 그려보자', '독도야 너는 누구니?' '독도 홍보 동영상 시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p> <p>철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배지 배부 및 독도현수막 앞 사진 촬영, 독도에 대한 한마디 등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p>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PLAY DOKDO'를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활동 영상	UCC	<p>100일간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간략히 정리한 영상</p>  <p>WE DOKDO의 발자취 조회수 8회</p> <p>4 0 공유 오프라인 저장 저장</p> <p>WE DOKDO 구독자 4명</p> <p>http://www.youtube.com/watch?v=HFC-vaK3mNo (위의 그림 클릭시 연결됩니다.)</p>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에 대한 전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으며, 약 1,000여명의 학생들이 독도 홍보대사로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기억하고 알리겠다고 서약을 했다

또한 홍보대사로 서약한 학생들에게 배지를 지급하여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배지를 가방 및 옷에 달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가치관이 성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서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 할 수 있게 하였으며 '**WE DOKDO 페이스북**'을 활용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WE DOKDO**동아리 멤버들은 동아리단체티를 자주 입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옷을 통해 독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하여서, 독도

홍보대사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 향후 계획

‘WE DOKDO’ 동아리는 교내 자율동아리로 이어져 나갈 예정이다.

현 2학년 동아리 학생들을 주축으로 내년, 내 후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독도 자율동아리를 이어나갈 계획에 있다.

또한, 페이스북 WE DOKDO 페이지는 꾸준히 게시물을 올려 독도 홍보를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였던, 홍보 활동들을 일반화 시켜서 더욱 많은 인원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땅 독도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들이나 타 학교와의 연합으로 활동구역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며 언젠간 WE DOKDO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 멤버들은 평상시에도 독도 홍보 티셔츠를 입고 다녀 주변의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및 도우미님들	느 낀 점
류화평	이번 독도 행사는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던 것 같다. 팀의 리더로서 책임져야 할 일과 진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 무거웠었다. 학생신분으로 기말고사가 겹쳐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일정이었기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많았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독도를 위해 하나라도 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져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우리 팀원들 마음속에 독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무리를 해서 많은 일을 벌이기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유치 원 한 곳,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곳, 대상은 모두 25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었다. 지도교사 선생님의 긴밀한 협조와 잦은 회의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하나하나씩 이루어감에 우리 팀원들은 더욱 단결을 하게 되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독도는 결코 외 로운 섬이 아니었고, 그저 거기 있는 하나의 땅이 아닌 우리 모두의

	<p>사랑을 받고 있는 생명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 크게 하였다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일본의 나쁜 계략에 넘어갈 수 없다는 굳은 마음을 품을 것이다. 독도야.. 우리가 곁에 있다.. 우리 1000명의 WE DOKDO 홍보대사가 있다!!! 독도야!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힘내~~ 화이팅!!</p>
양주연	<p>처음 모였을 땐 힘든 일도 있었고, 의견의 충돌도 생겼지만 서로 잘 조율하고 이해하며 독도에 대한 같은 마음으로 모였던 것 만큼 금방 단합이 되었다. 반년 즈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며 우리 땅 독도에 대해 보다 더욱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고, 동아리 활동이 뿌듯하였다.</p>
강서윤	<p>우리 땅 독도를 위한 행사를 하면서 배지 제작과 옷 제작을 위한 비용 부담과 잦은 회의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힘들긴 했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우리 땅 독도를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행사나 홍보를 하면서 아이들의 독도에 대한 견고한 마음씨를 봐서 뿌듯했고 대회를 떠나 우리 땅 독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이 노력해서 우리 땅 독도를 빼앗기지 않고 확실히 우리 땅임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까지 알리고자 노력해야겠다. <WE DOKDO, PLAY DOKDO!> 독도야, 우리가 응원할게 힘내!!</p>
오현택	<p>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그런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정말 뿌듯하고,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p> <p>또한, 활동을 여러 차례 진행 하면서 때로는 형, 누나와의 의견대립으로 마음이 상할때도 있었고, 내가 할 일을 제 때에 못해서 죄송할 때도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하나씩 풀어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 우리팀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다.</p> <p>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 한 것 같고, 나를 이 팀에서 잘 이끌어준 화평이 형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독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어서 좋았다. 독도는 절대적인 우리의 땅이다. 파이팅~</p>

류보배	<p>이번 독도 행사를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뻐지만, 막내로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다. 하지만 조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배려심에 의견도 많이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독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생들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였을 때 아이들이 해맑게 독도를 그리며 웃는 모습에 나 또한 함께 기뻐고 즐거웠다.</p> <p>내년에도 이 동아리의 일원으로 남아서 독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겠다. 독도를 자꾸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다보니 독도가 정말 사랑스럽다.</p> <p>독도야! 나도 함께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p>
김주형 (도우미 철산중2)	<p>난 이제까지 학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활동으로 독도가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더 많이 추진할 것이며 독도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야겠다.</p> <p>독도야.. 너 참..좋다</p>
최은덕 (학부모)	<p>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도배지를 나눠줄 때, 역시 아이들은 반복적인 알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도 얘기를 했을때 '독도요?' 하며 독도가 뭐였지.. 하는 표정을 짓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p> <p>'독도가 외롭대' 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고 묻고,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에, 또 다른 독도의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 기존과는 다른 각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한번 듣고 딱,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독도라는 하나의 테마를 두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만큼은 쉽고 놀이같은 가르침의 툴을 만들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p> <p>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장식장안의 있지만, 있는지 모르는 인형처럼 될 수 있으니 자꾸 장난처럼, 뽑기 인형처럼 앞에서 흔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p>

5. 건의사항

○ 독도를 위한 홍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만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독도의 로고가 새긴 팔지, 핸드폰 고리, 티셔츠, 모자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학생 자체적으로 용돈을 모아 준비한다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었고 이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배지로 하여 등교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좀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의논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기업 또는 여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독도 홍보를 진행하다 보니 그 동안 독도관련 자료가 학교에 게시 된 것을 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포스터라도 배부되어 학교나 유치원에 게시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도 포스터를 보며 한 번씩이라도 독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겼으면 합니다.